

주간 한우정보

제10호

2021. 7. 26.

국내 소식

-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우의 가격안정 역할

해외 소식

- 미국 농무부, 축산 가족경영 지원제도 강화
- 일본, 수입 쇠고기 가격 급등
- 미국,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육류가격 상승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우의 가격안정 역할

□ 2021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한 가운데,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1.6%에 그쳐, 한우고기의 물가안정 역할을 확인

○ 2021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108.04로 전년 6월 104.88 대비 3.0%(3.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 2012년 이후 연간 지수에서, 전년비가 가장 높은 해는 2017년의 2.5%이었으며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상승률은 0.2~1.6% 수준
-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빈도 및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로, 1995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소비자가 자주 구입 하거나 가끔 구입 하더라도 가격 변동에 민감한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15년을 100으로 한 지수

○ 2021년 6월 한우 등심 1등급 100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은 1만 170원으로 전년 6월의 1만 6원 대비 1.6% 상승에 그침

[생활물가지수와 주요 축산물 소매가격 동향]

(원, %)

구 분		20년 6월	21년 6월	전년 대비 상승률
생활물가지수		104.88	108.04	3.0
축산물	한우등심 1등급(100g)	10,006	10,170	1.6
	돼지고기 삼겹살 중품(1kg)	2,382	2,543	6.8
	닭고기 도계 중품(1kg)	5,052	5,309	5.1
	계란 특란 중품(30개)	5,144	7,535	46.5

자료 :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통계청
 주 : 1) 생활물가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하는 지표
 2) 축산물 소매가격은 전국 평균가격

- 같은 기간 돼지고기 삼겹살은 6.8%, 닭고기는 5.1%, 특히 지난겨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생산기반이 약화된 계란은 46.5% 상승
 - 냉장 삼겹살(100g) : (20.6.) 2,382원 → (21.6.) 2,543원, 161원 상승
 - 닭고기 중품(1kg) : (20.6.) 5,052 → (21.6.) 5,309원, 257원 상승
 - 계란 특란 중품(30개) : (20.6.) 5,144 → (21.6.) 7,535원, 2,391원 상승
- 소매단계뿐만 아니라, 도매단계에서도 한우 가격 상승률은 수입 쇠고기보다 훨씬 낮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1~6월 상반기 기준, 2021년 냉장 수입 쇠고기 1kg당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미국산이 11.3%, 호주산이 16.3% 상승
 - 미국산 냉장육 수입단가(1~6월) : (20) 9.7\$ → (21) 10.8\$, 1.1\$ 상승
 - 호주산 냉장육 수입단가(1~6월) : (20) 9.8\$ → (21) 11.4\$, 1.6\$ 상승
 - 한편, 2021년 6월 한우 도매가격(지육, kg)은 2만 831원으로 전년 6월의 1만 9,503원 대비 6.8%(1,328원) 상승에 그침
-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소비증가 등 한우고기 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격안정이 가능했던 것은 한우의 사육기반 안정 및 공급물량 증가 때문
 - 상반기(1~6월) 기준, 한우 도축 두수는 2019년 35만 8천두에서 2020년 36만 9천두, 2021년 37만 9천 두로 매년 1만 두씩 증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 식품 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한우고기 소비에 유리한,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61.7%로 나타남
 - 응답자 57.9%는, 수입 쇠고기를 많이 쓰는 외식 횟수는 줄였다고 응답
 - 또한 해외여행 감소도, 그만큼 소득효과를 가져와 한우고기 소비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내국인 출국자(1~3월, 천명) : (19) 7,864 → (21) 228, 97.1% 감소

□ 한우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 가격안정 효과는, 가격변동률을 계산으로 보면, 4.1% 정도로 추산됨

- 2021년도 상반기 한우 도축 두수가 2019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추정
- 가격변동률은 공급물량변동율, 즉 한우 ‘도축 두수 변동율’에 ‘가격신축성계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음
 - ‘도축 두수 변동율’은 2019~2021년 상반기 기준, 도축 두수 변동분 21천 두(379천 두 - 358천 두)를 2021년 도축 두수 379천 두로 나눈 5.5%
 - 한우 자체 물량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률을 나타내는 ‘가격신축성계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 0.74’를 적용
 - 가격변동률 = - 0.74 × - 5.5% = 4.1%
- 계산 결과를 한우 도매가격(지육, kg)에 적용하면, 2021년 6월 가격은 2만 1,685원으로, 실 가격 2만 831원보다 854원 높은 수준

[도축물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추정]

구 분	수 치	비 고
가격신축성계수 (A)	- 0.74	자체 물량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인용
도축 두수 변동률 (B)	- 5.5%	상반기(1~6월) 기준, 2019~2021년 도축 두수 변동분(21천 두)을 2021년 도축 두수(379천 두)로 나눈 비율
가격변동률 (A×B)	4.1%	-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주 : 도축 두수 변동률은, 1~6월 상반기 기준, 2019~2021년 도축 두수 변동비율

□ 한편 향후 코로나로 인한 한우 수요 증대요인이 약화 되고, 지속적인 한우 공급량 증가 국면이 서로 맞물리면, 가격신축성계수 (-0.74)보다 더 큰 수준의 가격하락이 우려됨

작성 : 황명철 부소장

미국 농무부, 축산 가족경영 지원제도 강화

- 미국 농무부(USDA)는 7월 초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구상을 통해 축산 가족경영 지원조치를 발표
 -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식육업계의 대기업 부정행위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패커 스톱야드법’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을 재구축
 - 축산농가에 대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부당한 우대, 부당한 편견과 같은 동법의 위반행위의 명확화
 - 경쟁력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지역의 식육 유통 시스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
 - 소매업의 시장 집중 등이 가족경영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주요 시장에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매매 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어, 소수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됨
- ‘Product of the USA’ 라벨을 전면 재검토하고 라벨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
 - 이는 국내 축산농가가 소비자를 속이는 외국기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국산 기준을 강화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미 농무부(USDA)가 발표
- 미국육우생산자협회(NCBA)는 비육우농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빌색 농무장관에게 고마움을 표명
 - 안정적인 쇠고기 공급망 확보를 통한 생산자 수익성 향상을 기대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1.7.21)

일본, 수입 쇠고기 가격 급등

- 일본 수입 쇠고기 도매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음. 생산량 감소와 중국의 왕성한 쇠고기 수요 등을 배경으로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현지 가격이 급등
 - 소매가격도 점점 상승하면서, 유통업체 사이에서는 수입국이나 부위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국산육 판매 확대 기회로 여겨짐
 - 농축산업진흥기구에 따르면 최근 5월의 호주산 냉장 목살 도매가격은 전년 비 17% 높은 1kg에 1,123엔
 - 미국산 쇼트 플레이트(냉동)는 동 67% 높은 1,087엔으로 급등
- 배경에는 이상기후에 의한 호주산의 감소이나, 경제활동 회복에 의한 중국의 수요증가 등이 주요 요인
 - 농축산업진흥기구에 의하면, 중국의 1~3월 냉동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 했으며, 특히 미국산은 전년 대비 7배의 수입 증가를 기록
 - 일본 국내에서는 3월 이후 도매가격 상승이 현저해지면서, 이를 소매가격에 반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5월의 호주산 양지의 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14% 상승한 100g에 254엔
 - 대기업 한 임원은 “금년 한 달은 고가가 계속될 것, 가을 이후 음식점 메뉴 등에서 산지 변경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적
 - 일본 서부지역 중심으로 50개 점포 이상을 전개하는 소매점도 “향후, 수입 쇠고기는 매장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명
- 높은 가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산 쇠고기 저가격 부위의 판매 확대 등 국산으로의 전환도 전망되고 있음

자료 : 일본농업신문 (21.7.17)

미국,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육류가격 상승

□ 미국 전문조사기관 ‘210 Analytics’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육류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육류 전 품목 파운드당 평균 가격은 2021년 1분기 3.89\$에서 2분기 4.08\$로 상승.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8%, 2.3% 증가
 - 2019년 1분기 및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8.7%, 13.3% 증가

[육류 유형별 가격 변동]

구 분		2021년 가격 (\$/1파운드)	변동률(%)	
			vs. 2020	vs. 2019
전체 육류	1분기	3.89	4.8	8.7
	2분기	4.08	2.3	13.3
신선육	1분기	3.73	4.9	9.7
	2분기	3.98	1.6	14.6
가공육	1분기	4.30	4.4	6.2
	2분기	4.29	3.8	10.9

자료 : 210 Analytics, IRI, Integrated Fresh, Total US, MULO, average price per volume and % gain versus YA(Year Ago) and 2YA

- 2021년 상반기 육류판매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6.7% 증가
 - 상반기 시장성장에 기여한 상위 3가지 품목은 쇠고기 등심, 쇠고기 분쇄육 및 베이컨으로 각각 5억 8,900만\$, 5억 5,400만\$ 및 5억 4,400만\$

□ 미 농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대비 금년 5월의 초이스급 쇠고기 도매가격과 등심 소매가격은 각각 45.8%, 10.2% 상승

- 1파운드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0년 12월 217.8\$에서 2021년 5월 317.6\$로, 같은 기간 스테이크용 등심 소매가격은 898센트에서 989.2센트로 상승

자료 : USDA, THE FOOD INSTITUTE (21.7.15)